

“골프장업계 성장세 내년 둔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23년 국내 골프장산업 전망 그린피 인하·캐디피 제자리... 골프장 수익률은 하락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국내 골프장 업계의 성장세가 2023년엔 경기침체와 골프붐 진정 등으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등세를 보아왔던 그린피는 골프붐 진정과 그동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발표한 2023년 국내 골프장산업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던 골프장들의 수익률은 최고치를 경신한 2022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해외골프인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해외골프는 국내에서 골프를 치기 어려운 겨울철에 많이 나간다는 점에서 국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골프장 그린피 인하 전망

새해에는 국내경기침체와 골프붐 진정 등으로 골프수요가 줄어들면서 골프장 그린피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대

중골프장 그린피 평균 인상률이 주중 33.3%, 토요일 24.5%에 달했다. 캐디피는 팀당 14만~15만원으로 인상됐고 카트피도 팀당 9만~10만원으로 올라갔다. 새해에는 그린피의 정상가격이 이전 수준을 유지하되 비수기 시간대의 그린피는 싸게 책정하면서 골퍼들을 유치할 것으로 점쳐졌다. 38개소에 달하는 대중골프장들은 기존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받기 위해 그린피를 2만원 정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교포 캐디 등장... 캐디피 추가 인상 없을 듯

새해부터 중국교포들이 캐디로 취직할 수 있게 되고 캐디 수입이 원활해지면서 캐디피가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교포 캐디들은 4명의 골퍼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팀당 캐디피도 10만원 수준에서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10만원에 불과했던 골프장의 팀당 캐디피는 2014년 12만원, 2021년 13만원, 그리고 2022년에는 14만~15만원으로 가파르게 올

랐다. 때문에 골퍼 1인당 캐디피 지출액은 2012년 21만 2000원에서 2021년에는 28만 5000원으로 34.0% 인상돼 같은 기간에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 인상률 54.9% 다음으로 높았다.

▶골프장 수익성 하락

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최고치를 경신한 2022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022년의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이용객수가 폭로 찾고 그린피·카트피 등 이용료도 인상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1년의 회원제·대중제 합계 영업이익률이 39.7%에 달했는데, 2022년에는 40%대 초반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분기까지의 골프장 영업이익률(14개사 기준)은 35.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에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56.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포인트 상승했다. 이를 감안할 때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48.8%에서 2022년에는 50%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상윤기자



2022 체육상 시상식·체육인의 밤 "2022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행사가 지난 23일 메종클래드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제주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표창함으로써 체육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됐다. 제주도체육회 제공

손흥민 4년 연속 '올해의 남자 선수'

대한축구협회 '2022 어워즈' 여자는 지소연... 통산 7회

손흥민(토트넘핫스퍼)과 지소연(수원FC위민)이 올해를 빛낸 선수로 선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 KFA 어워즈를 개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올해의 선수는 손흥민과 지소연이 선정됐다. 손흥민은 2021/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으며,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주장으로 한국의 원정 16강 달성에 기여했다. 손흥민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올해의 남자 선수에 선정됐고, 2013년 첫 수상 이후 통산 7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지소연도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통산 7번째로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가 됐다. 지소연은 올해 초 인도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에서 월드컵 스텝 활약을 펼치며 역대 최고 성

적인 준수성을 이뤘었다. 올해의 영플레이어로는 양현준(강원FC)과 천가람(울산과천대)이 선정됐다. 천가람은 2년 차인 양현준은 올해 K리그에서 발군의 실력을 선보이며 K리그1 영플레이어상과 함께 KFA 영플레이어상까지 2관왕을 달성했다.

천가람은 '천메시'라고도 부른다. '천메시'라는 별명은 선배인 지소연이 가진 별명인 '지메시'와 유사하다. 지소연의 후계자인 셈이다. 올해의 지도자상에는 파울루 벤투 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과 김은속 인천현대제철 감독이 받았다. 조상윤기자 sycho@halla.com

강별, 올해 최고 장애인여성스포츠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상... 장애인체전 등 '2관왕'

강별(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이 올해 최고의 장애인여성스포츠인으로 밝게 빛났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강별이 지난 22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시상식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스포츠위원회 선정 '올해의 장애인여성스포츠상' 선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별은 올해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창던지기와 원반던지기 우승으로 2관왕에, 제3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창던지기과 원반던지기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하며 2관왕을 차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별은 "열심히 훈련한 결과 자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좋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장애인여성스포츠상은 여성선수과 지도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스포츠



'올해의 장애인 여성 스포츠상' 선수상을 수상한 강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상으로, 매년 장애인여성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선수와 지도자 1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러시아, 한국과 월드컵 예선 치를까...

금주 유럽연맹 탈퇴 후 AFC 가입 여부 결정

러시아가 유럽축구연맹(UEFA)을 탈퇴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24일 "러시아가 UEFA를 떠나 AFC로 향하는 것에 대해 27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렉산더 듀코프 러시아 축구협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등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했다.

러시아 스포츠의 '아시아행 검토'는 이달 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서밋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측은 "기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징계를 존중하면서 이 나라 선수들이 아시아 지역 대회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아시아 지역 예선을 거쳐 출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의 AFC 가입 더 나아가 OCA 가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경우 2023년 AFC 아시안컵이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러시아를 상대하게 될 수도 있다.

러시아의 FIFA 랭킹은 37위로 우리나라의 25위보다 낮지만 AFC로 넘어올 경우 단숨에 아시아 상상을 놓고 경쟁할 만한 전력을 갖춘 팀이다.

AFC 소속이던 이스라엘이 1992년부터 UEFA로 넘어갔고, 오세아니아연맹 소속이던 호주는 2006년부터 AFC로 편입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 11:55 2년째 우리말 2022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불만한 아침 M&W 1부 8:05 해 불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재)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커튼콜(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마녀의 게임(재) 8:30 테마여행 길 스페셜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보보보 좋아좋아 11:15 헬로키즈 과학교실 11:30 와썹 프리메이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문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8:00 당동당 유치원 9:20 빅 블루 9:40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3:50 EBS 다크프라이미 15:35 레전드 히어로-삼국전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7:30 미니특공대 바이레인저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12:00 KBS 뉴스 12 13:00 넷드위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처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5:00 콘텐츠 인테너(재) 15:50 고를말 이수다 16:00 사시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15 커튼콜(재) 13: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두리둥실 몽개공항 2(재)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크(재) 16:50 연속 플러스(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5 이맛에 산다(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세상을 이룬일이(재)	12:00 SBS 12 뉴스 12:50 트롤리(재) 14:00 최강 1교시(재) 15:00 내모세모 16:00 종문아침 스페셜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뉴스 17:50 순간포착 세상을 이룬일이(재)	7:00 김탁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농담뉴스 14:05 송정미의 속속속 17:05 시사예거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관속부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송년 기획 우리말 겨루기 20:30 내 눈에 콩깍지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풍의 신부 20: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21:50 커튼콜 23:00 오늘 고풍하다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마녀의 게임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안싸우면 다행이야 22: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00 트롤리 23:0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7:00 김탁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농담뉴스 14:05 송정미의 속속속 17:05 시사예거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관속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신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6일

김종상 지단(해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휴식과 안정 속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 48년 투기나 도박에서 멀리하니 안정이 보장되는 은행의 직종이나 투자가 적절. 60년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외로움이 밀려온다. 여행도 필요. 72년 협회나 동호회 등 모임이 있다. 안전사고 조심. 84년 주관이 뚜렷하지 않을 때 신배의 충고와 내게는 보약이 된다.

37년 은천욕이나 사우나에서 안정을 취해도 좋음. 49년 도움을 줄 일이 생긴다. 내 도움이 미약하지만 상대에게는 크다. 61년 활동이 왕성해도 내말대로 할 수가 없다. 73년 남의 말에 너무 맹신을 하지 말라. 도움이 안된다. 중동구애 주의. 85년 이상교제 또는 만남이 생기니 귀기는 늦지 않도록 할 것.

38년 상가 또는 식당에 갈 일이 생기니 음식은 주의 해야. 50년 문서는 이동수는 길하나 임시생이 있으면 부모는 정보분석 등 전문가와 상담. 62년 작은 일로 마음에 상처가 되니 편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적 일을 하라. 74년 시험 자격증과 관련된 시험은 컨디션이 중요하다. 86년 재능을 인정받고 주위 협조가 있다.

39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오거나 소식을 접한다. 모임 초대가 온다. 51년 친구를 만나 외출을 하거나 회식자리가 생긴다. 63년 의욕은 넘치나 막상 해야할 일의 중요성과 가치때문에 고민한다. 75년 변동, 변화가 필요. 부족을 채우려고 고민하니 상의할 사람도 필요. 87년 늦게 약속이 생기면 취소하는게 좋다.

40년 과거를 후회하기 보다는 교훈으로 삼아 내일을 준비. 52년 소꿉할 일이 생긴다. 필요한 것만 구입하라. 64년 원칙과 품행보다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 순발력과 유연성으로 대처하라. 76년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니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라. 88년 구설수가 있으니 이성간 또는 햇사람과 조심.

41년 일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제거방법을 찾아라. 53년 매나 임대에서 이익이 있으나 숨은 자제. 65년 자녀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 오니 주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봐도 좋다. 77년 모임, 약속이 생기기도 하니 숨은 다소 자제. 89년 안정이 있고 신기에 날카로워진다. 조기 귀가.

42년 부부간 갈등이 있거나 가정사로 고민이 생긴다. 이해와 배려가 묘약. 54년 실속이 적으니 신중하게 처리하거나 자중해야 한다. 66년 변화를 필요로 하는 날이다. 중요한 계약은 내일로 미루라. 78년 제테크 투자가에 길하다. 주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라. 90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존경을 받는다.

43년 내 노력을 인정받고 관청의 인허가 서류에 이익이 있다. 55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길. 67년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하니 바깥에서는 활동영역이 넓다. 79년 전문직은 이익이 따르고 직장인은 인정을 받는다. 91년 사사로움 감정이나 오히려 인한 인정을 심신을 차하게 한다.

44년 분별력이 필요하니 생각을 신중하게. 경쟁망등은 비웃음에 대상이 된다. 56년 문장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금전상 이익이 있는 날. 68년 일한 만큼의 이익 생각하고 창업이나 개업은 신중하게 판단. 80년 직장이나 취업문제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 92년 변동하는 것은 불리하니 신중을 기해야.

45년 회합을 갖고 노력하면 일의 성과가 있다. 57년 상대를 감싸 안아 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니 이해를 많이 해줄 것. 69년 수입이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주변과 공유하라. 81년 부동산이나 세일즈분야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93년 나의 체력이 왕성해도 능력을 인정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6년 자녀나 수하인의 자문이나 상담이 생긴다. 58년 이익을 먼저 논하지 말고 내일에 동참하는 게 좋다. 70년 새로운 발상 또는 손재주로 인한 사업은 진전이 있고 장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82년 미용분야·의류업·악세서리업은 기쁨이 많다. 94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고 마음이 즐거우니 하다. 문서운이 있다.

47년 경정이 진행되고 질투나 배신 등이 오니 신중하고 친목에 어울려야 좋다. 59년 형제중에서 애·경사가 생겨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 71년 장영, 매매, 전문업은 활동이 분주하고 이익 증가. 83년 허세를 부리면 구설수에 오르니 필요할 말만 하고 행동조심. 95년 무리한 투기보다는 안전에 차중 필요.